

February 22 영적 예배, 거룩한 산 제물

• 로마서 12:1-2

어떻게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죄 된 인간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아니고는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방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주하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결국, 영적인 예배는 나의 자격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영(spirit)이십니다(요 4:24).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깊은 것에 통달하는 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고전 2:10-11). 하나님은 사물(things)이 아니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곁모양에 속지 않으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는 솔직하게, 영과 진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찢기고 죽임당한다는 뜻입니다(레 1:5-6). 나의 자아, 죄 된 본성, 옛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삶의 양식으로 살아갑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way of life)을 보여 줍니다. 성령께 내 모든 것을 위임할 때,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조정하시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십니다(고후 5:17).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찢어지는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십시오(オス왈드 챔버스). 주님의 손길을 거부한 인생은 으깨지지 않은 포도알, 찢기지 않은 빵에 불과합니다.

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 ❶ 예배를 통해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온전히 위임합니까?
- ❷ 더욱 찢기고 부서지고 으깨져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